

# 박도원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교수  
행정법

## 최근 3개년 판례 특강

- 교재를 중심으로 중요판례를 정리하는 강의
- 최신판례와 유사한 내용의 기출된 판례는 **관련판례** 로 수록
- 판례의 기출지문을 별도로 수록하여 판례와 객관식 지문을 함께 학습
- 판례지문을 중심으로 변시대비 모의고사 지문 중 출제가능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
- 지엽적인 내용의 판례는 삭제하고 최신 기출 또는 모의고사 지문으로 대체
- 쟁점을 파악하여 판례의 결론과 논거로 시안포섭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일 정

7. 30(금) ~ 7. 31(토), 오전 강의, 금~토 강의, 총3회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00분  
오후 2시 00분 ~ 오후 5시 30분  
\* 7/30(금) 오전, 오후 연강

교 재

- 행정법 정리 최근 3개년 판례(저자, 제8판, 근간)

강 의 특 징

### 1. 기출문제로 검증된 【최근 3개년 판례】의 적중률

최근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기출문향을 보면, 기존 기출지문 이외에 거의 모든 지문이 3개년 판례집에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도원 행정법 3개년 판례집은 높은 적중률과 수험대비 효율성으로 이미 검증된 책이고, 본 강의는 해당 교재를 중심으로 중요판례를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행정법 최근 3개년 판례특강****강 의 특 징****2. 【최신판례】와 【예상지문】**

최신판례의 중요쟁점은 모두 예상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상지문을 통하여 판례의 중요쟁점을 파악한 이후에 본문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방법입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예상지문이 실제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나, 타 시험의 기출지문에 반영된 최신판례 이외에 학술지에 소개된 판례를 지문화한 내용이 기출에 많이 반영된 것은 의외였습니다.

**3. 【관련판례】와 【기출지문&모의고사지문】의 연계학습**

최신판례와 유사한 내용의 기출된 판례는 ‘관련판례’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판례의 기출지문을 별도로 수록하여 판례와 객관식 지문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지문에는 타 시험의 기출지문 이외에 법전협 모의고사 중 판례지문을 중심으로 변시대비 모의고사 지문 중 출제가능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판에는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지엽적인 내용의 판례는 삭제하고 최신 기출 또는 모의고사 지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한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과 쟁점화**

이번 강의는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논리와 맥락】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신판례가 객관식 지문화 되는 경우 틀리게 만드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최신 판례가 사례화되는 경우에 어려움 없이 쟁점을 파악하여 판례의 결론과 논거로 사안포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될 겁니다.

**마치며...**

행정법 【최근 3개년 판례】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지문 총정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식 지문과 관련판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활용한 강의는 3회의 최소분량으로 중요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정지문 핸드북】과 【행정법 쟁점답안지】를 두 개의 수레바퀴로 하면서 양자를 이어주는 중심축이 되는 【최근 3개년 판례】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수레바퀴의 견고한 중심축인 【최근 3개년 판례】는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노고와 그 지난한 과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수험도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부족함을 강의의 열정으로 채우고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공감으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